

定期理事會 개최

제 8 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8 일 오후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玨會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지침 마련과 설계도서 신고 사무취급 규정 개정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주요업무보고로는 지난 8 월 28 일에 개최된 지부장회의 결과와 대구 건축사회관 준공, 역대회장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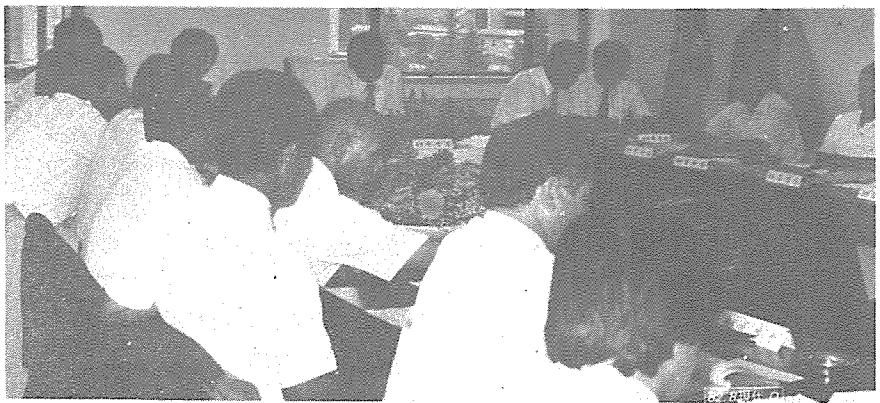


건축 3 단체조찬회, 직원인사이동 사항 등이 보고 되었다.

제 4 회 支部長 會議

제 4 회 지부장회의가 지난달 28 일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시도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具玨會회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보고된 주요업무로는 82년도 건축사시험합격자에 발표 내용과 분석결과, 회비미납자에 대한 처리, 분소장취임승인, 전기통신공사설계용역 입찰거부, 사정회의 참석, 건축관계 법령집 발간준비, 정기감사계획, 전시회 종료, 세무감사수감, 지부장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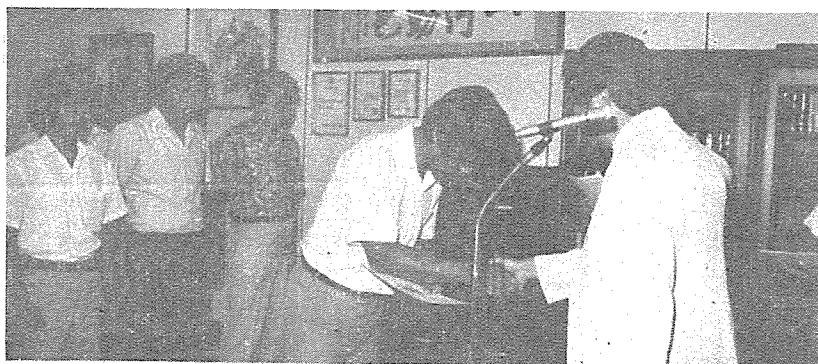
협의사항처리 결과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협의사항으로는 8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안에 대한 협의와 설계도서 심의위원회 설치

안, 건축정보자료실운영, 감정업무전 담 및 연구실운영, 83년도 회원작품 전, 체육대회 부활, 제반정관개정안 등이 차례로 논의되었다.

協會人事이동 실시

本部·支部 직원 8 명



본회 본부 및 일부 지부에 대한 인사이동이 지난달 19일 실시되었다.

이날 시행된 인사이동은 본부 출판사업부장을 비롯 공석 중이던 경기도지부 사무국장 발령과 일부 직원에 대한 보직 변경 및 승진 등으로 대상인원은 모두 8 명에 달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본회 회장실에서 있었던 사령장 수여식에서 具玨會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회원설계사무소의 운영이 날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본협회가 진정한 회원을 위한 협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자세 확

립과 보다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종래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일소하고 이번 인사를 계기로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회원이 마음놓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이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전직임)

□ 金東國=본부출판사업부장(서울지부 기술부장) □ 尹容震=경기지부 사무국장(서울지부 총무부장) □ 辛平基=서울지부 기술부장(서울지부 기술과장) □ 李正男=서울지부 총무부장(본부경리과장) □ 金雄謙=서울지부 기술역(본부 기술과장) □ 權重浩=승급(경기지부 총무과장) □ 權五成=본부경리과장(본부기획과장) □ 金聖培=본부기술과장(본부지도과장)

歷代會長團 초청 간담회

編纂委員會



본회 역대회장초청간담회가 지난 8월 17일 본회 회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오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6명의 전임회장과 具瓈會회장, 그리고 金基壽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는 협회현황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의견교환에 이어 업무량 감소에 따른 회원설계사무소의 운영 난 대책강구 등이 논의되었으며, 그

밖에 비위회원 처리방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아울러 건축행정전반에 관한 문제 점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개진이 있었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는 이밖에 도 협회의 진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다.



회지의 종합 합평과 편집계획 수립을 위한 편찬위원회(위원장 朴商浩)가 지난 월초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9회째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호에 대한 합평에 이어 9월편집계획수립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9월호는 정기 특집호로 주택을 위주로 한 칼라판 제작계획에 따라 많은 회원작품과 곁들인 주택관계 논문 등이 수록될 것이다.

약 15~20여개의 회원작품과 3~4편의 주택관계논문 등을 비롯해서 해외작품, 자료 등이 폭넓게 게재되는 이번 9월특집호는 약 120여면으로 증가돼서 발간할 계획이다.

三團體 조찬회 가져



건축 3단체 정기 조찬회가 지난달 25일 시내 호텔롯데에서 오전 8시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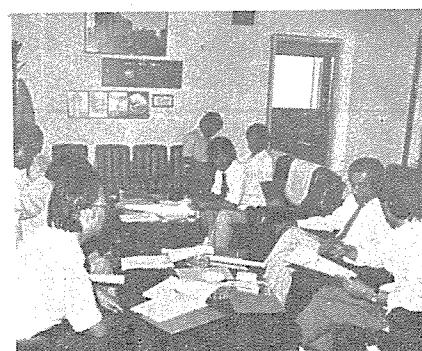
건축학회 주관으로 본회 具瓈會회장 및 金根德건축학회회장, 李丞雨건축가협회 회장과 각 단체 소속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건축계 전반에 걸친 공동 관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

등이 있었으며 주로 대학 졸업자에 대한 건축사면허제도 개선방안과 건축사법 시행령에 의한 설계도서 10년 보관문제, 학회회관건립 추진에 따른 협조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그밖에 건축전문국설치, 학회 및 가협회 행사문제 등에 대한 의견교환과 건축 3단체 공동간담회 추진 등이 합의사항으로 논의되었다.

設計圖書分科委



제 3회 설계도서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李丞雨)가 지난 8월 30일 본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1차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에 이어 이를 토대로 한 설계도서 기준설정을 위해 방향설정 등

을 논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무에 적용할 도면검토 요점의 정리와 작도기준설정(도면작도표현방법의 요령)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한 후 해외입수자료 등을 참고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작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실적을 검토한데 이어 83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실적인 4편의 논문(건축과 공기조화의 계획Ⅰ·Ⅱ, 건축과 방재, 건축반송설비표준 시방서)을 회지를 통해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건축사보수교육과 병행해서 설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속적으로 연구실적논문을 회지를 통해 4회에 걸쳐 발표키로 했다.



□ 설비분과위원회

동 분과위원회의 차기 모임은 오는 10월중순에 열기로 했다.

設備分科委

제 4회 설비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尹鳳源)가 지난달 24일 본회 회의실

大邱建築士會館 개관



대구지부(지부장 金在佑) 회원들의 요람이 될 건축사회관이 착공 10여개 월만에 완공, 지난달 28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구시내 수송구 범어동 3가 1-8에 자리잡은 신축회관에서 있었던 개관식에는 具玗會회장을 비롯한 본협회 임원, 金在佑지



부장 및 소속회원, 그리고 대구직할시 도시환경국장 등 3백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테이프를 끊었다.

소속회원인 金武權(현대 건축연구소) 회원이 설계한 신축회관은 8백 32m²의 대지위에 건축면적 3백 66m², 연전평 약 2천 m²의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날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개관식에 이어 베풀어진 기념연에는 참석인사 등이 모두 모여 환담을 나누며 신축회관을 둘러 보기도 했다. 신축회관 4층에는 지부 사무실이 자리잡게 되며 5층은 회의실, 그리고 기타 층은 임대할 예정이다.

’88人類祭典 위해 建築藝術 가다듬자